

제4회 대학교육정책포럼

## 21세기 신대학 문화의 이념과 방향

- 일 시 : 1999. 11. 25(목) 14:00~17:00
- 장 소 : 숙명여자대학교 수련교수회관
- 주 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후 원 : 숙명여자대학교

한 국 대 학 교 육 협 의 회

## 「제4회 대학교육정책포럼」 일정표

시 간	내 용
14:00 ~ 14:30 14:30 ~ 14: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 록</li> <li>· 개회식</li> </ul> <p style="text-align: right;">사 회 : 김형근(대교협 정책연구부장)</p>
14:40 ~ 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발표 1 : 신대학문화 창조운동의 이념과 방향 이경숙(숙명여자대학교 총장)</li> </ul>
15:10 ~ 1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발표 2 : 우리나라의 대학문화의 현황 및 발전방향 이현청(대교협 사무총장)</li> </ul>
15:40 ~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 식</li> </ul> <p style="text-align: right;">사 회 : 최종원(숙명여대 전략기획실장)</p>
16: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민용태(고려대 교수), 전상인(한림대 교수), 문창재(한국일보 논설위원), 유을용(숙명여대 박사과정)</li> </ul>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 회</li> </ul>

## ● 주제 발표 1 ●

### 신대학문화 창조운동의 이념과 방향

— <목 차> —

I. 서 론 : 신대학문화 창조의 필요성 / 3

II. 본 론 / 5

1. 신대학문화 창조의 이념과 방향 / 5

2. 지식공유 문화 / 6

3. 올바른 정보생활 문화 / 8

4. 통일조성 문화 / 10

5. 섬김 문화 / 11

III. 결론 / 14

## 신대학문화 창조운동의 이념과 방향

이 경 숙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 I. 서론 : 신대학문화 창조의 필요성

‘일그러진 대학문화’, ‘뒤틀린 대학음주 문화’, ‘비틀거리는 대학문화’, 이러한 문구들을 언론을 통하여 자주 듣게 된다. 이는 최근 들어 대학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주로 인한 학생들의 사망, 성추문사건, 시험부정행위 등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학문의 전당’, ‘지성인의 전당’이라 하는 대학에서 ‘낭만’, ‘전통’이라는 미명아래 사발주 돌리기, 동아리회장 골탕먹이기, 생일맞은 동료 구타하기, 신입생 길들이기 등 비지성적인 캠퍼스 문화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반성과 새로운 대학문화의 창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어느 지식인은 “‘70년대 학생들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방황한 세대라면 ‘80년대의 대학생들은 의문을 제기하기 보다 주장을 앞세웠으며 또한 자신들의 주

장을 뒷받침해 주는 사실을 존중하지 않거나 무시해 버리는 특성을 지녔던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비해 '90년대 대학생들은 감각적이고 관능적이기까지 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은 기피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학생들의 가치관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게 될 인류는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과 생명과학 등 첨단과학의 위력이 인간의 삶의 양식과 질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우리 대학생들의 사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은 지식을 산출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현 사회와 미래의 올바른 세계관을 열어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에, 대학들은 시대적 철학에 기반한 사회의식과 생산적 문화창달의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학인들은 새천년의 새로운 삶의 환경에서 인류가 가야 할 길을 밝혀 줄 최상의 등불은 대학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양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학문적 패러다임의 정립과 효율적인 제도 개선 등을 과감하게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조화롭게 융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이며 건전한 가치관으로서, 다원화된 문화개념을 포괄하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신대학문화' 모형을 제시하여 신대학문화 창조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신대학문화란 어떤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국가와 민족, 나아가 인류발전에 기여할 대학문화의 내용을 구상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신대학문화 창조의 이념과 방향

오늘날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의 핵심적 원인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문제는 곧 교육의 문제로서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대학이 지금까지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였는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이 변화와 개혁의 구심점이 되어야 함에도 오늘날 우리 대학의 모습은 이러한 사명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새천년 대학의 모습이 어떠한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학의 참다운 정신을 산출시킬 수 있는 무형의 에너지원인 '문화'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사회적 측면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21세기의 방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이 주장하고 공감하듯이 새천년은 지식정보화사회라고 한다. 결국은 '지식정보문화'가 보편적 '사회문화'가 될 것이다. 대학문화가 사회현상이 그대로 대학에 표출되는 사회문화의 반영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대학문화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기반하여야 함과 동시에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문화'로 정착,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산업화시대의 사고에서 정보화시대의 사고로 바꾸는 노력이 대학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대학은 정보사회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지식정보문화의 본질을 파악하여 올바른 대학문화확립에 대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즉 정보사회가 미래를 향해 항상 열려있는 가능성의 사회인 반면 정보창출과 이용, 습득의 차이에 따라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새롭게 제기될 가능성도 크며 개방화된 시스템에서 소외된 개인의 문제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대학문화는 지식정보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문제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문화이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에 중점을 두고 신대학문화의 4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지식 공유 문화, 올바른 정보생활화 문화, 통일조성 문화, 섬김 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 2. 지식공유 문화

지식공유문화란 각 개인과 조직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을 조직화하여 조직 구성원이 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총체적 역량을 발전적으로 강화시키는 문화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종래의 지식개념이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소유의 개념이었다면 지식공유문화가 지향하는 지식의 개념은 정보의 흐름으로 보다 강화된 지력사회를 이루는데 있다.

지식공유문화는 학제간 연구, 학문의 일반화, 토론문화의 정착, 평생학습체제의 확산, 합리적 의식의 저변확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지력사회가 지식의 부가적 가치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사회라고 본다면 지식공유문화의 정착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연구하는 학문의 장인 대학에서 꼭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식공유문화는 현장문화와 사이버문화 모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학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결정과정을 공개하고 교수와 교수, 교수와 학생, 정책결정자들과 대학구성원간의 정보와 의견이 개방되어 모든 일들을 함께 공감하고 협의하는 일련의 과정과 노력들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대학정책결정자 및 학생, 교수, 직원과의 간담회의 정례화, 대학가 구성원들간의 기획회의, 각종 행사 및 회의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다.

즉,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내외 지도자 초청 등으로 대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지식공유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정보의 교류, 대화의 장을 위한 전국적,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지식공유를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정보와 지식을 개방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개방적 사고가 보편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분위기 조성이 바로 지식공유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식공유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전 대학구성원 홈페이지 갖기 운동, 홈페이지 경연대회, 사이버 백일장, 정보사냥대회, 사이버 토론장 개설, 사이버 학술대회 등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고안하여 대학의 구성원들이 정보생활에 친숙해지고 흥미를 유발,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각 대학 별로 시행하고 있기는 하나 그 파급 효과가 매우 미약하다. 더욱 효과적인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전 대학이 함께 기획·참여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각각의 주제로 통합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세계 속의 우수 대학들도 참여할 수 있는 범 세계적 커뮤니티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도서관은 대학의 중요한 정보창고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대학에서 전자도서관을 구축 중에 있다. 전자도서관은 과거의 도서관과는 달리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자도서관 구축에서도 대학은 서로 협력을 통하여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대학마다 중복된 자료를 구축하는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올바른 정보생활화 문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은 이미 일상생활화 되고 있으며 아직 일반화된 수준은 아니지만 벌써 재택근무, 화상회의, 가상수업, 전자투표 등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약 55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러한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5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제 정보의 생활화는 선택이 아닌 우리 생활의 필수가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은 교내 유선통신망을 구축하여 대학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산망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캠퍼스의 전산화 및 정보화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들은 학내 어느 곳에서도 노트북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무선통신망의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선통신망에 무선통신망을 첨가하여 캠퍼스전체가 시공간의 제약없이 정보를 이용하고 산출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공간이 된다면 대학이 정보생활의 중심지로서 더욱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정보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인터넷 사용 ID를 제공하고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정보생활화 확산에 노력하는 한편 수업과 연구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같이 인터넷 활용이 빈번해지자 최근 들어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문화가 탄생하면서 긍정적 측면과 함께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남을 비방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용어들을 사용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등 게시판의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대학들이 대학내의 여론 수렴을 위한 열린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곳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무책임한 글을 올림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다.

정보의 생활화는 많은 이점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그러한 이점을 부정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한 예로 앞서의 게시판이용 에티켓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유출, 스팸(Spam) 메일, 해킹(hacking) 등을 들 수 있는데 심각할 경우 주요 데이터들이 훼손되고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되기도 한다. 이와같은 문제는 정보이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건전한 정보생활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대학의 정보화와 관련된 교육을 보면 정보화 기술위주의 교육이 중심이 되어 왔다. 앞으로 정보생활문화가 더욱 의미있고 생산성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 사이버문화에 대한 네티켓 교육을 통하여 대학인의 올바른 정보생활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겠다.

또한 정보사회에서의 생활양식이 극도의 개인주의화, 원자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는데,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정보생활화된 사회란 통신 정보망을 통해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며 상호교류하는 사회를 뜻하는 것으로 가상의 세계에서는 공통의 화제, 취미 등에 따라 남녀노소의 구별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 토론하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에게 인터넷카드, e-mail 등을 보낼 수 있게 하고 가족 홈페이지, 인터넷가족신문 등을 통해 대화하고 이해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환경을 창조해 낸 것처럼, 손쉽게 간편하게 가족간, 개인간의 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보화사회가 기계문명에 지배되는 메마른 사회라는 인식보다는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는 바람직한 정보생활화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 4. 통일조성 문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번영과 복지를 염원하며 더욱 큰 도약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같은 시대적 변혁기에 21세기를 빛나는 미래로 가꾸고 당당한 민족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하는 과제가 있다. 바로 민족분단의 아픔의 역사를 화해와 용서로 극복하여 평화통일을 이루고 한민족공동체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바람직한 대학문화는 정보화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지식·정보문화의 확립과 동시에 민족의 지상과제인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의식 및 관심을 고취시키는 문화의 확산일 것이다.

이 통일 조성 문화는 통일문제를 하나의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우리 삶의 일부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생활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분단이후 남북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하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상호 이질화가 심화되어 상이한 의식구조 및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초래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민족본연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적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한민족 공통의 정서를 모색해야 하는 필요성을 범 대학인들 사이에 인식시키고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과 함께 동포애적 사랑과 관용을 기반으로 한 '북한 바로알기'를 주제로 한 통일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학의 통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통일을 위한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민족정서 함양을 도모하며 통일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도록 대학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 투자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즉, 재학생들의 통일 의식을 높이고 통일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통일관련 교과목 개설, 대학생통일논문 발표회와 같은

행사 개최, 탈북자들과 늘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사이버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대학을 연계하여 세계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사이버 평화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세계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구의 인적, 물질 토대를 갖춘 대학이 추진 가능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통일운동 및 통일교육을 이끌어나간다면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통일문화의 조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재들이 배출될 때 대학이 통일운동의 바람을 일으키는 통일조성문화의 진원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5. 섬김 문화

새천년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은 대립과 갈등, 소외와 분열의 논리가 아닌 화합과 통합 그리고 사랑의 사회 건설이다.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환경, 교육, 인권 등 친 환경적이고 평화 지향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음을 주지할 때 인간이 추구해야할 참된 가치와 이상은 타인과 더불어 함께 하는 참된 인간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섬김의 문화는 그 동안 소원해졌던 모든 관계 즉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는 문화이다. 관계회복이란 것은 배려와 따뜻함으로 각 개인이나 사회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의 최대치를 발휘하게 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모든 섬김의 출발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며 나눔과 봉사의 사랑은 받기보다는 주는 데에 더욱 큰 보람이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섬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낮추는 것 즉 희생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결코 쉽지 않으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위대한 인물들을 생각해보면 모두 자기를 희생하여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존재자체가 우리 부모님의 희생과 우리에게 대한 섬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의 존재 목적은 학문과 기술의 개발을 통한 인류와 민족과 사회에 대한 공헌이요, 헌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에서 대학을 다니고 졸업한 사람들이 대아(大我)를 선택하기 보다 자기와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워 역사발전의 장애가 되어온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대학과 대학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 대학인 모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대학이 지식의 전당으로 역사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자기혁신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섬김은 결코 굴종이나 복종이 아니며, 자발적이고 자기와 시대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우러나온다. 따라서, 이제 대학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열린 사고의 인재들을 키워 이 사회가 사랑과 봉사가 충만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섬김 문화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막10:43-44)라는 성경 말씀처럼 섬김 문화운동은 결국 봉사와 사랑의 논리가 모든 사람들의 자기 실현은 물론 더욱 큰 맥락에서의 발전과 번영을 약속하는 길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운동이다.

또한 섬김 문화에는 대학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뜻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국경이 없는 시대에 살게 된 우리들은 이웃 나라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예절, 인격,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가정이나 초등학교 어린 시기에서만 아니라 대학교육에서도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인성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

지 않는다면 섬김 문화운동은 결코 성공적인 대학문화 운동으로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을 통하여 대학의 역할 중 하나인 봉사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나라 전통의 상부상조 정신인 '두레' 정신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봉사는 자기만의 삶을 위한 일도 아니며 혼자서만 하는 일도 아니다. 모두가 힘을 합하여 바른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 사랑의 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동시에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담당한다.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약한 이웃을 도우며 우리가 모두 같이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성장하고, 개인이 조금씩 희생하면서 모든 사람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共同意識이 형성되는 것이다.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복지국가 등 많은 선진국들은 사회변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운영도 더욱 체계화, 전문화하고 있다. 이는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지구촌의 공존공영과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중요성을 더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학인들은 거시적으로 올바른 대학문화를 정립하여 한국사회의 발전적, 긍정적 "문화"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시켜 삶의 뿌리로부터 내면적 리듬을 담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Ⅲ. 결 론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는 대학이 변해야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대학인은 이러한 요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데 異論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이 변하기 위해서는 그 대안이 필요하기에 본 고를 통하여 신대학 문화창조 운동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안하였다.

앞서 제시한 4대 신대학 문화 창조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학 교육환경개선과 함께 대학 구성원 모두의 마음 자세가 변해야 하며 반대로 대학 구성원의 사고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도 신대학문화 창조운동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의 참다운 의미는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키우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건강하고 밝은 “사람”들이 많은 사회, 올바르게 참다운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를 꿈꾸는 것이 교육의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닌가 생각한다.

새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끌어안고 가야하는 대학이 먼저 변해야 한다.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교수, 직원이 변하고, 대학과 공동운명체인 학생들 역시 바람직하고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대학을 즐거운 곳, 희망과 사랑의 보금자리, 정신적 울타리로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의 ‘신대학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 주제발표 2 ●

# 우리나라 대학문화의 현황과 신대학문화 창조의 방향

### <목 차>

I. 서론 / 17

II. 신대학문화의 이념과 필요성 / 19

1. 대학문화의 의미와 특성 / 19

2. 신대학문화 창조의 필요성 / 21

III. 우리 나라 대학문화 현황 / 22

IV. 신대학문화의 정착을 위한 발전방향 / 27



## 우리나라 대학문화의 현황과 신대학문화 창조의 방향

이 현 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I. 서론

대학은 교육, 연구, 봉사를 그 기본사명으로 하는 진리탐구의 전당이자 문화를 공유하는 문화공간이다.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학생 등의 인적구성원들은 이러한 문화공간에서 교육과 학습활동을 하게된다. 이점에서 대학문화의 특성여하에 따라서는 전체 대학구성원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대학전체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나라 대학의 문화적 특성을 돌아볼 때 1960년대 이후 학생운동이 대두되면서부터 대학은 곧 '시위문화'와 '저항문화' 그리고 '반문화'(count culture)적 성격을 띄어왔다. 특히 70년대 이후 정통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왔던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반정부적시위의 장이 되어왔고 70년중반이후 후기 마르크스주의적 영향과 급격한 경제발전에서 비롯된 사회구

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의식이 복합되면서 대학은 곧 '투사문화'와 '시위문화'의 장이 되어왔다. 이와 함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전통적 가치와 직업구조의 재편 그리고 서구문물의 도입은 대학생들의 의식을 전반적으로 전환시켜 세속화된 기성문화와 표피적이고 脫衣的文化(naked culture)를 심화 확대시켜왔다.

더구나 80년 후반부터 대두된 사이버체제는 대학생 개개인의 의식구조를 '자기주의적'(me-ism)성향으로 뒤바꿔놓았고 공동체 문화의 공간으로서의 대학문화도 이제 원자화된 사이버문화(cyber culture)로 전환되기에 이르고 있다.

특히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대학생의 문화는 타국가와의 접목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서구성향의 문화적 성향이 두드러진 특성이어서 대학문화는 이제 대 전환기를 맞고있는 것이다. Atkin의 「심각한 4년」(critical four years)에서 지적하는 바대로 대학은 자기의 실험기간이고 대학이 놀이 문화적 특성을 지닌 파티스쿨(party school)적 문화일 때 대학본연의 사명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을 시기이기도 하다. 이점에서 우리 나라 대학들은 「신대학문화」를 정립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신대학문화정립의 핵심적 부분의 하나는 '제2의 사회화'기간이라는 특징이고 학문과의 만남, 이성과의 만남, 과도적 사회문화와의 만남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서비스학습(service learning)에 의한 사회봉사와의 접목가능성이라든지 사회현실속에서의 문제해결능력습득 등의 「새로운 만남」과 「자기재창조」의 시기이기도 하다.

## II. 본론 : 신대학문화의 이념과 필요성

문화는 엄격한 의미에서 인류가 시작된 그 시간부터 존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대학문화 역시 대학이 설립된 시간부터 개별 대학차원에서 대학문화가 형성된다 볼 수 있다. 더구나 문화란 '장기간에 걸쳐 변혁된 총체'(transitional whole)라는 점에서 문화와 교육의 관계에서 볼 때 문화과정 이 곧 교육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대학생은 대학 문화적 존재(cultural being)이며 문화화 과정을 통해 대학의 전통과 가치 그리고 풍토를 형성하는 주체라 볼 수 있다.

윌리엄(William, 1965)은 그의 저서 「긴 혁명」에서 문화를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문화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총체이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구성원이 의미를 지니게 되는 총체이다 라고 했다. 따라서 문화란 인간 삶의 총체적 실체라는 것이다. 특히 대학은 지식을 창출하여 이를 응용하고 실천하는 곳이다. 더구나 올바른 지식(right knowledge), 올바른 신념(right being) 그리고 올바른 실천(right practise)을 하는 곳이 대학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올바른 문화정립은 구성원들의 의식, 교육내용 그리고 이러한 교육내용과 가치를 실천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적 관건이 된다 하겠다.

### 1. 대학문화의 의미와 특성

대학문화를 보는 관점은 '미숙한 문화'나 '대항문화' 그리고 '하위문화'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하면 '새로운 문화' '신 물결'(new wave)로 보는 견해도 있다. 대학문화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든 대학구성원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패턴과 사회 물질적 경험의 표현형태라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대학문화는 그 주체인 교수, 학생, 직원 그리고 이들 구성원과 관련된 내  
외적인 환경요인들에 의해 형성된다 하겠다.

결국 대학문화는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학생에 의해서 형성되고 이렇게 이  
루어진 문화가 공유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구성원들이 대학에서 공유하고 있는 문화형태는 대학생 개개  
인들의 학업성취는 물론 교육의 기본기능중의 하나인 문화전달 및 창조의  
기능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학문화의 특성을 보면

- ① 연령집단문화적 특성 (동년배의 사회적 삶의 영역)
- ② 하위 문화적 특성 (부분문화로서 전체문화와의 차이)
- ③ 세대 문화적 특성 (세대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
- ④ 반문화적 특성 (현세적이고 저항적이며 세속적 문화형태와 내용)
- ⑤ 역사성 / 사회성적 특성  
(특정한 사회적 흐름과 상황에 연관된 강렬한 특성)
- ⑥ 청소년 문화적 특성(발달단계상 성인초기 혹은 청년기적 특성)
- ⑦ 무감각증후군적 특성(문화무감각증적 태도의 시기)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의 연령분포가 이러한 동일연령층이라는 점과 캠퍼스 내와  
캠퍼스 주변문화라는 점 그리고 발달 특성상 대학생들이 대학구성원들 중  
에서도 주도적 위치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대학문화의 결정적인 주체  
는 교수나 직원보다는 대학생들이라 볼 수 있다.

흔히 대학생들을 'X세대'나 '레드부숄' 이니 '신세대'나 또는 '신 인류'라고  
지칭하기도 '586세대'나 'N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도 대학생  
그룹의 독특한 문화적 형태와 문화적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대학문화의 주된 주체자인 대학생들의 사고체계, 캠퍼  
스내의 활동적 특성 그리고 대학관과 흥미 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학문화의 본질이 결정된다 하겠다.

## 2. 신대학문화 창조의 필요성

신대학문화 창조의 필요성은 세기적 전환기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대학의 변화와 그 동안의 우리 나라 대학문화의 실태를 감안해볼 때 충분한 근거가 있다 하겠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를 살펴보면 표방하는 의식은 건전하지만 실제 행동이나 태도측면에서는 상반된 모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대학문화는 현재 전환기에 처해있다고 사료된다. 70~80년대의 저항 문화적 특성에서 90년대 이후의 「분절적 분화문화」로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 나라 대학생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대학문화를 편의상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① 획일적집단문화 → 분절적분화문화
- ② 이데올로기적 저항문화 → 무감각증후군문화
- ③ 욕구이전문화 → 욕구이후문화
- ④ 학과중심 선후배문화 → 탈학과문화
- ⑤ 캠퍼스문화 → 탈캠퍼스문화
- ⑥ 귀속적 문화 → 성취중심문화
- ⑦ 이상추구문화 → 현실지향문화
- ⑧ 사유문화 → 감성적 문화
- ⑨ 동성문화 → 양성문화
- ⑩ 자국지향문화 → 서구지향문화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진다.

특히 학과 중심적인 문화적 특성이 이제 학부제도입 이후의 脫學科文化적 성격을 갖게됨으로써 학생지도의 측면에서 종래와 같은 선후배의 인간적 연대나 학과전공중심교수에 의한 지도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특히 대학생들의 특성이 개인주의와 성취 지향적 특성을 띠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학생지도자체가 전환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또한 서구화 경향과 탈캠퍼스적인 경향이 대학문화와 대학생의 태도를 세속화시키는 면도 없지 않아 대학문화와 문화의 주체이자 객체인 대학생들의 면모를 크게 바꾸어 가고 있다.

학부제 이후의 소속감 결여, 선후배간의 연대의 약화, 소속교수의 위상약화 등도 이러한 경향과 접목되어 학생지도의 과제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점에서 학부제이후의 학생지도의 방향은 새로운 대학문화(新大學文化)를 정립한다는 기본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하리라 본다.

### Ⅲ. 우리 나라 대학문화 현황

1999년 5월말 현재 우리 나라는 188개의 4년제 대학교 162개의 2년제 대학 그리고 669개의 대학원, 18개의 대학학령인정 대학 등에서 2195,090명의 대학생이 학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 6600명을 대상으로한 대학생들의 의식구조와 국제경쟁력을 분석한 발표자의 저서 「한국의 대학생」(1999년간)에 의하면 우리 나라 대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1) 건강에 대학 지각등 신체적자아개념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 2) 자기 스스로의 용모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 3) 자신의 성격이 원만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4)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5) 가정의 분위기와 부모와의 관계 등 가정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 6) 스스로의 지적인 측면에서 남들과 비슷하거나 낮은 편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 7) 자아존중감이 높으나 사회적자아개념이 낮다.
- 8) 건강한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9) 인내심과 포용력부분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10) 인생관과 관련하여 가장 원하는 삶은 업적을 이루는 삶과 참된 친구를 갖는 삶, 건강한 삶 등을 지적하고 있다.
- 11) 스스로 평균이상의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12) 성적으로 상당수준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 13) 사회성공의 요인으로 실력과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14) 상담교수와 논의하고 싶은 문제는 진로문제, 학업문제, 인간관계와 관련된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 15) 40%이상의 학생이 사후의 세계(영혼)에 대해 믿고 있다.
- 16) 3명중 1명의 학생은 인류의 미래가 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17) 65%의 학생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 18) 절반이상의 학생들이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 19) 54%의 학생들이 시위 및 현실참여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20) 실력보다 지연, 학연, 부모의 배경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 21) 경제정책에서 사회보장과 균형 배분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 22) 73.3%의 대학생들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 23) 우리 나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부정부패라고 생각한다.
- 24) 효성이나 효도가 모든 행동의 근본이라 보고있으나 점차 거추장스러운 구속으로 느끼고 있다.
- 25) 가족의 협동과 애정을 강조하고 결혼상대의 조건으로서 정신적 안정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결혼 상대자는 자신이 선택하려는 생각

을 가지고 있다.

- 26) 절반의 대학생들이 10년 이내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27)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며 추구하는 가치는 양심, 소신, 정직, 신의 등으로 나타나 있다.
- 28) 51.9%의 대학생들이 혼전 성관계에 대해 가능하면 순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29) 대학발전에 관한 아이디어 수렴의 창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 30) 35%의 대학생들이 강의실이나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 31) 5명중 1명은 대학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고 47%의 학생들은 약간 공부하는 분위기라고 느끼고 있다.
- 32) 스터디그룹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학생이 5명중 1명으로 나타나 있다.
- 33) 선후배간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학생이 44.3%이고 학교행사에 가능하면 참여한다는 학생도 45%로 나타나 있다.
- 34) 자신의 대학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36%로 나타나 있다.
- 35) 동아리활동이 도움이 된다는 학생이 40%로 나타나 있다.
- 36) 4명중 1명의 학생이 진로나 계획에 관해 교수와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37) 교수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약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35%정도가 교수의 격려와 적극적인 지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 38) 취업준비시기는 3~4학년에 이루어지며 62%의 학생이 영어회화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5명중 1명의 학생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39) 한학기의 강좌당 준비시간이 평균 1시간미만인 학생이 3명중 1명, 2~3시간 준비하는 학생이 4명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40) 주로 공부하는 장소는 학교도서관과 집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 46%학생이 과제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강의에 대해 40%학생이 흥미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나라 대학생의 의식구조와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우리 나라 대학문화의 현황은 현세적이고 자기중심적 특성이 강하며 보다 감성적 측면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점에서 한국대학문화는 현재 전환기에 처해있다고 사료되며 70~80년대의 저항 문화적 특성에서 90년대 이후의 「개인주의적 자기중심문화」로의 전환과정에서 우리 나라 대학생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선 신 대학문화구축을 위한 체제를 정비하는 일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생문화의 올바른 정립의 과제는 교수, 학생, 직원의 「3각문화」(tri-culture)의 정립을 그 대전제로 삼아야한다. 즉 새로운 문화정립을 전체대학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을 감안해야한다. 이러한 것들은

#### 1) 학생생활연구소역할과 기능의 강화

- ① 진로지도강화
- ② 유학 및 학사지도강화
- ③ 전문상담프로그램의 강화
- ④ 상담풀제(Counseling Pool)의 도입
- ⑤ Internship 프로그램강화
- ⑥ 동아리 지도연계체제의 강화
- ⑦ 여학생프로그램 / 남학생프로그램의 재조직
- ⑧ 학년별 정규지도 및 활동프로그램정립
- ⑨ 지도특강제도입
- ⑩ 봉사학습지도프로그램개발

2) 학생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재정립

- ① 연중 프로그램개발
- ② 1년생 프로그램개발
- ③ 주제 / 영역별 학점이수제 도입
- ④ 교양강좌 연계지도프로그램개발

3) 봉사학습망의 구축

- ① 봉사연대구축
- ② 봉사형 대학문화제 정립
- ③ 봉사학습지도교수제의 도입

4) 학생-교수-직원의 공동체문화구축

- ① 학생-교수 encounter프로그램
- ② 학생-직원 encounter프로그램
- ③ 학생-직원-교수 정규직 프로그램개발
- ④ 선후배문화시리즈

5) 교수상담플체의 도입

6) 협약지도제의 도입 등을 고려해 봄 직하다.

대학은 이제 학생소비자시대라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학생소비자시대에는 학생의 복지와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사와 관련된 지도와 서비스가 강조되리라고 본다. 이점에서 학부제도입이후의 학생지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학문화의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학생지도 전략이 요구된다.

이런 전략은 개별지도의 관점이라기 보다는 총체적 대학문화의 정립이라는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가치이식(Value migration)이 확대되고 있는 열린 문화의 세기에 대학생의 삶과 가치, 그들이 공유하는 문화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고 종래의 틀도 이에 적응하는 틀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도의 관점보다는 함께 하는 관점으로서의 의식전환이 필요하고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자의 지도관점보다는 공유하는 신대학문화의 정립을 통한 접근이 요구되는 때이다.

#### IV. 신대학문화의 정착을 위한 발전방향

신대학문화는 21세기를 준비하는 대학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변화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할 때 정착이 가능하다 하겠다.

- service learning 학사구조의 정착
- 학생특성 다양화에 따른 학생 서비스체제의 구축
- 대학의 이념과 목적 재정립
- 세속문화와 대중문화의 정화 구조설정
- cyber culture의 신대학문화연계체제 구축
- 지역사회봉사체제의 재구축
- 삶의 질과 관련된 대학생활정립
- 인격의 재구조화
- 대학공동체 형성(교수, 직원, 학생간)
- NGO 와 NPO의 서비스연대구축
- NGO 와 NPO learner 양성프로그램 활성화
-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
- 배움의 문화 재정립

- 학생동아리 활동의 재구조화
- 만남의 문화재정립
- community extension program 활성화
- 동창연대구축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 나라 대학문화발전의 방향은 결국 신대학문화의 구축은 우리 나라 대학문화 패러다임의 새로운 정립과 관련된 문제로서 대학구성원들 모두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겠다.